

KORDI ISSUE PAPER



창간호

발행일 2019.04.30 / 발행인 강익구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의 특성과 신체 활동역량 변화 추이 분석

- 공익활동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

김 문 정 | 연구조사센터 선임연구원
(moonjung87@kordi.or.kr)

요약

- 본고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8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사업 참여노인의 특성과 신체 활동역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분석함.
- 분석결과, 남녀 성비 구성은 70:30 수준으로 여성 참여자 비중이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무학' 비중은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졸'과 '고졸' 비중은 증가 경향을 보이며, 80대 이상 후기노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지원', '노노케어'의 경우, 80대 이상 후기노인 비중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80% 이상 노인이 기초 근력 및 지구력, 유연성 동작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경우, 80대 이상 후기노인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기초 근력 및 지구력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됨.
-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고학력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함. 또한, 기존 노인의 기초 근력 및 지구력, 유연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80대 이상 후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근로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또는 직업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임(이석원 외, 2016).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5천개로 시작해 2018년 51만개를 넘어서면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불안정한 노후소득보장,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이 진입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일자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확대가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됨.

〈표1〉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확대방향

2017년	⇒	2022년	대상
43.7만개	⇒	80만개+α	
공익활동 307천		공익활동 526천	만 65세 이상 고령·저소득자
재능나눔 45천	⇒	재능나눔 시니어 사회공헌단 80천	만 60세 이상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은퇴자
시장형사업단 55천		시장형사업단 131천	만 60세 이상 중상위 소득자, 민간기업 취업 희망자
고령자친화기업 25개소		고령자친화기업 30개소	
인력파견형 19천		인력파견형 38천	
시니어인턴십 6.9천		시니어인턴십 11.9천	
기업연계형 3천		기업연계형 8천	

출처 : 보건복지부(2018)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 정책대상 및 기존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활동역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8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¹⁾ 사업의 세부 유형별로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활동역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검토하고, 향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공익활동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활동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정책대상으로 함. 이전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명칭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2016년 재편하여 현재의 공익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이석원 외, 2016).

2)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총괄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임. 전국의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 참여노인과 운영기관을 모집단으로 지역별 비례할당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함.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조사 현황〉

구 분		2007	2010	2013	2016
참여노인	모집단수(명)	121,762	242,318	234,867	320,521
	표본수(명)	2,987	1,500	2,022	2,500
수행기관	모집단수(개)	914	1,213 (2011년 추진)	1,215	1,205
	표본수(개)	[전수조사진행]	[전수조사진행]	602	600

2. 분석자료

1) 분석자료 및 용어정의

- 본고에서 공익활동 세부 유형별로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활동역량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노인일자리 실태조사’²⁾ 3개년(2010, 2013, 2016) 조사 자료를 활용함.
-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활동역량은 2010, 2013, 2016년 조사 항목 중, 2개년 이상 동일하게 조사된 항목을 변수로 활용하였음(〈표2〉 참고).

〈표2〉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활동능력 측정 변수

변 수 명		설 명
일반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60대(65~69세), 70대(70~79세), 80대 이상(80세~)
	학력	무학(한글해독 가능), 초졸, 중졸, 고졸
신체 활동 능력	기초 근력 및 지구력	걷기, 계단 오르기 동작 수행에 문제가 없는 노인 비중* * ‘전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과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노인비중의 합 - 걷기: 운동장 한바퀴 400m 정도 걷기 동작 - 계단 오르기: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동작
	기초 유연성	몸 구부리기, 손 뻗어 닿기 동작 수행에 문제가 없는 노인 비중* * ‘전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과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노인비중의 합 - 몸 구부리기: 몸을 구부리거나 찌그러 앉거나 무릎 꿇기 동작 - 손 뻗어 닿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3. 분석대상 기초통계

- 본 연구는 공익활동 참여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분석대상은 2010년 1,200명, 2013년 1,542명, 2016년 1,934명이며, 분석대상의 기본 특성은 아래와 같음.
 - 여성 참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여성비중이 70%에 달함.
 - 70대 이상의 후기고령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2010년 71.9세, 2013년 73.7세, 2016년 74.9세).
 - 단독가구(독거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전체 공익활동 참여자의 40%가 독거노인으로 나타남.
 - ‘무학’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중졸’ 이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짐. 다만, 여전히 ‘초졸’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3〉 분석대상 전체 기초통계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3년		2016년	
전체		1,200	100.0	1,542	100.0	1,934	100.0
성별	여성	731	60.9	1,042	67.6	1,332	68.9
	남성	469	39.1	500	32.4	602	31.1
연령	평균(세)	71.9		73.7		74.9	
	60대	404	33.7	305	19.8	257	13.3
	70대	714	59.5	1,051	68.2	1,357	70.2
	80대 이상	82	6.8	186	12.1	320	16.5
가구형태	단독(독거)	336	28.0	521	33.8	774	40.0
	그 외	864	72.0	1,021	66.2	1,160	60.0
교육수준	무학	308	25.7	366	23.7	289	14.9
	초졸	419	34.9	623	40.4	972	50.3
	중졸	187	15.6	253	16.4	337	17.4
	고졸	178	14.8	169	11.0	254	13.1
	대졸이상	108	9.0	131	8.5	74	3.8
	무응답	0	0.0	0	0.0	8	0.4

4. 사업 유형별 참여노인 특성 변화

1) 성별 변화 추이

- 공익활동의 경우, 여성참여자 비중이 70% 수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 참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여성 참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형은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으로 나타남. 특히, 경륜전수활동의 여성참여자 비중은 2010년 47.0%에서 2016년 60.2%로 13.2%p 증가함.
- ‘공공시설봉사’와 ‘경륜전수활동’의 경우 남성 참여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취약계층지원’사업은 2010년 23.0%에서 2016년 49.6%로 26.6%p 증가함.

〈그림1〉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성별 비중 변화 추이



참고) 2010년은 노노케어 참여노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제외.

2) 연령별 변화추이

- 공익활동 전체 참여노인의 평균 연령은 2010년 71.9세, 2013년 73.7세, 2016년 74.9세로 증가 경향을 보임.
 - 세부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지원'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이 2010년 70.4세에서 2016년 75.1세로 가장 많이 증가함.

〈표4〉 공익활동 참여노인 평균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구분	2010년	2013년	2016년
공익활동 전체 평균	71.9	73.7	74.9
공공시설봉사	72.9	74.9	75.2
취약계층지원	70.4	73.1	75.1
경륜전수	70.8	71.5	74.1
노노케어	-	72.7	74.5

- 사업 세부 유형별 참여노인 중, 60대(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80대 후기노인의 비중은 모든 사업 유형에서 증가추세를 보임. 특히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중, 80대 이상 참여노인 비중이 11.0%p 증가하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도 80대 이상 노인 비중이 2010년에는 4.0%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17.7%까지 증가함.
- 70대 노인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은 '경륜전수활동'으로 2010년과 2013년 50% 수준에서 2016년 70%로 20%p 증가함.

〈그림2〉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연령별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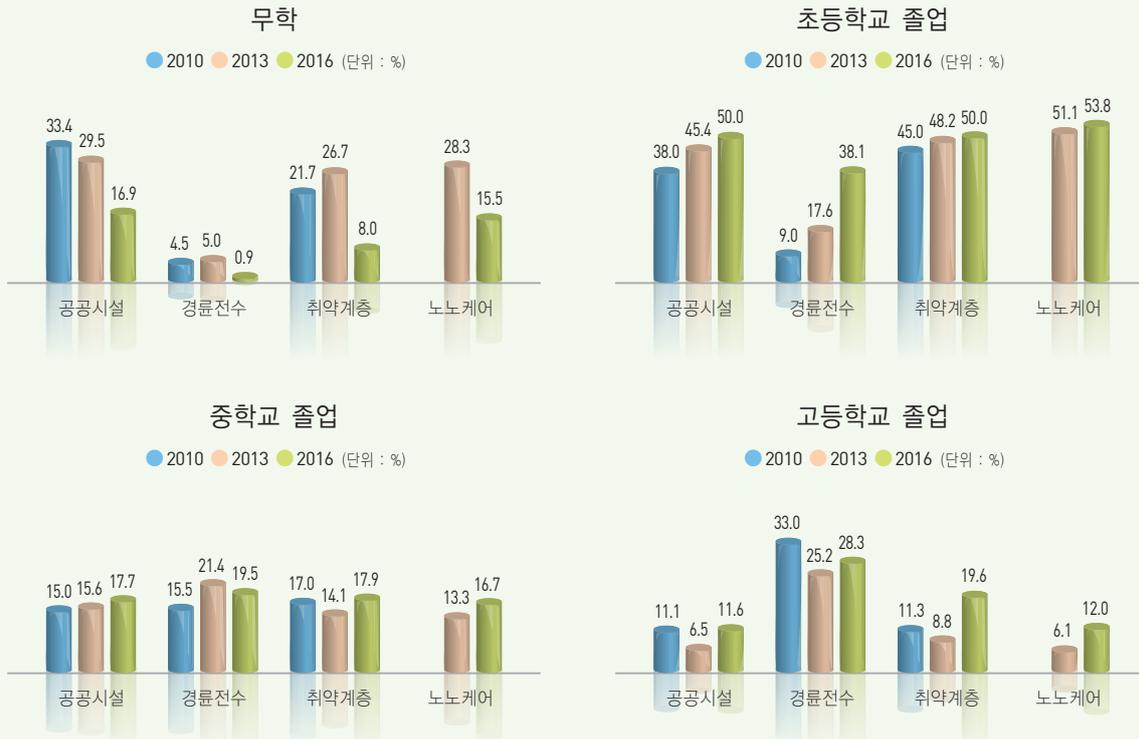
참고) 2010년은 노노케어 참여노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제외.

3) 학력별 변화 추이

- 공익활동 참여노인 중, 무학자 비중은 2010년 대비 2013년과 2016년 현저하게 감소한 경향을 보임. 특히, '공공시설봉사' 활동과 '노노케어' 참여노인 중, 무학자 비중이 현저히 감소함.

- 한편, 초졸 비중과 중졸 비중은 증가한 경향을 보여 2010년 참여노인 대비 2013년과 2016년 참여노인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륜전수’ 참여노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비중이 2010년 대비 2016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타 사업유형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3〉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학력별 비중 변화 추이



참고 2010년은 노노케어 참여노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제외.
 주 1) 무학에는 글자 모름, 글자해독만 가능한 노인이 포함됨.

5. 유형별 참여노인 신체활동역량 변화

1) 근력 및 지구력 동작 수행능력

- 근력 및 지구력 동작 중, 운동장 한 바퀴 정도를 쉬지 않고 걷는 동작 수행에 문제가 없는 노인의 비중은 2013년 92.8%에서 88.2%로 4.6%p 감소함.
- 쉬지 않고 10계단을 오르는 동작에 문제가 없는 노인 비중도 2013년 89.9%에서 2016년 84.6%로 5.3%p 감소하였으나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이 70대 중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노인의 하지 근력은 양호한 수준임.
- 특히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경우, 2013년 대비 2016년 80대 이상 후기노인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근력 및 지구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됨.

- ‘경륜전수활동’ 참여노인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근력 및 지구력 동작 수행이 원활한 노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4〉 근력 및 지구력 동작 수행이 원활한 노인의 비중



참고 : 근력 및 지구력 동작에 대한 조사는 2013년 이후 조사되었음.
 주 1) 걷기 : 400m 정도의 운동장 한 바퀴 정도 걷기 동작 2) 계단 오르기 : 10계단 쉬지 않고 오르기 동작

2) 유연성 동작 수행능력

- 공익활동 참여노인 중, 몸을 구부리거나 손을 뻗어 닿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노인의 비중은 2016년 기준 80% 수준으로 유연성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남. 다만, 유연성 동작이 원활한 노인의 비중이 2013년 대비 약 10%p 감소함.
- ‘취약계층지원’ 참여노인의 경우, 2013년 대비 2016년 80대 이상 후기노인 비중이 약 10%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노인의 유연성 동작 수행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됨.

〈그림5〉 유연성 동작 수행이 원활한 노인의 비중



참고 : 유연성 동작에 대한 조사는 2013년 이후 조사되었음.
 주 1) 몸구부리기 :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쭉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
 2) 손 뻗어 닿기 :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는 동작

6. 결론 및 시사점

- 본고에서 공익활동 세부 유형별로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활동역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남녀 성비 구성은 70:30 수준으로 여성 참여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한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지원'활동의 경우, 남성 참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 2016년 기준 남녀 성비간 차이가 가장 낮음.
 - 학력별로 '초졸'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무학' 비중이 감소 하고 '중졸'과 '고졸' 비중은 증가 경향을 보임.
 - 70대 노인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80대 이상 후기노인 비중도 점차 증가 경향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지원', '노노케어'의 경우, 80대 이상 후기노인 비중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노노케어' 참여노인의 경우, 80대 이상 후기노인비중이 증가하였으나 노인의 하지 근력 및 지구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기초 근력 및 지구력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의 비중은 10%~20% 미만).
 - '취약계층지원' 참여노인의 경우, 2013년 대비 2016년 80대 이상 후기노인 비중이 약 10%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동작 수행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됨.
-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남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함. 남성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남녀 간 성비 차이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2010년 대비 2016년 참여노인의 학력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향후 베이비부머가 유입될 경우 학력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공익활동사업 내에서도 고학력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인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유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기초 신체활동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80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일자리 참여기간 내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측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이석원 외(20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성과평가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윤기연 외(2016).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2018).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앙코르 라이프 플랜-』